

피카레스크 소설의 개인의식과 사회적 갈등

김 춘 진
서울대, 서문학

1. 피카레스크 소설의 문제

피카레스크 소설은 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라사로 출세기 *Lazarillo de Tormes*』(1554)에서 발원하지만, 그 반 세기 후인 1599년 『구스만 데 알파라체 *La vida de Guzmán de Alfarache, atalaya de la vida humana*』(1599)가 세상에 나오면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게 된다. 소설 『구스만』의 성공은 뒤이어 1602년 『속 구스만 데 알파라체 *La segunda parte del Guzmán*』라는 마르띠 Juan Martí의 위작 소설을 탄생시킬 만큼 선풍적이었다. 그로부터 『교활한 여인 후스띠나 *Libro de entretenimiento de la pícaro Justina*』(1605), 『마르코스 데 오브레곤의 모험 *Relaciones de la vida del escudero Marcos de Obregón*』(1618), 『사기꾼 *La historia de la vida del Buscón llamado don Pablos*』(1626), 『세비야의 담비 *La guardaña de Sevilla y anzueto de las bolsas*』(1642), 『피타고라스의 세기와 그레고리오 과다냐의 삶 *El siglo pitagórico y vida de don Gregorio Guadaña*』(1644), 『에스떼바네스 곤살레스의 일대기 *Vida y hechos de Estebanillo González*』(1646) 등 피카레스크 소설의 원형질을 재현하고 계승한 일련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구스만』을 ‘장르’ 정립의 계기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¹⁾

1) 피카레스크 소설의 범위는 사실 모호한 것이다. 『또레스 비야로엘의 일대기 *Vida, ascendencia, nacimiento y aventuras del doctor D. Diego de Torres y Villaroel*』(1743)까지 고려하면, 시대적으로 18세기까지 거슬러 내려갈 뿐만 아니라, 장르의 개념을 넓게 적용하면 작품의 범위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카레스크 소설을 보다 협의에서 정의하고 고전적 작품을 열거하려면, 우선 『라사리오』, 『구스만』과 『사기꾼』을 들게 된다. 말하자

일반적으로 『라사리요』를 피카레스크 소설의 기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사리요』의 서사형식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자서전 형식, 회고적 서사시점, 하급 신분의 기회주의적 인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배경 등은 『라사리요』에서 제시되고 전수된 피카레스크 소설의 원형적 특징이다. 무엇보다 ‘피카로’라는 하층신분의 주인공과 자전적 서술 형식은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의 두가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피카로’는 경제적 하층민이요 신분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며, 생존을 위해 도발적 기지와 모험을 일삼는 인물이다. 바따온 M. Batallon은 피카로를 규정하는 요소로 경제적 궁핍을 모면하려는 생존투쟁보다 신분적 명예의 성취욕망을 강조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피카로인 것이 아니라 명예를 사취하려는 자기기만이 피카로적이라는 것이며, 피카레스크 소설의 특징은 주인공의 신분적 콤플렉스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²⁾ 바따온은 피카레스크 소설의 서사적 동인을 주인공의 반사회적 범죄 자체가 아니라 가문의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출신 성분을 극복하려는 행위동기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사실, 명예³⁾는 스페인 고전주의 시대의 두드러진 사회적 징후였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지배적인 사회심리 현상이었다. 명예에 집착하는 사회심리는 스페인 사회의 역사적인 인종갈등에서 유래한다. 9세기의 걸친 무슬림의 지배를 받은 스페인은 기독교, 회교와 유대교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패어져 있었다. 특히

면, 피카레스크 소설의 고전적 시대 범위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엽까지로 좁힐 수 있는 것이다. 사실, 17세기 중엽에는 이미 궁정의 기호에 대응하여 민담과 외설해학 *facetiae* 등 다양한 소재를 혼합 구성한 ‘궁정소설’ *La Novela Cortesana*이 번성하게 된다. 존스 R. O. Jones는 『피타고라스의 세기』를 끝으로 피카레스크 소설은 소멸하고 새로운 취향의 혼합 픽션이 등장한다고 지적한다 (*Historia de la literatura. Siglo de Oro: prosa y poesia*, Ariel, Barcelona, 1974, p. 212).

- 2) 《La honra y la materia picaresca》, *Pícaros y picaresca*, Taurus, Madrid, 1969, p. 214.
- 3) 중세에 명예 *honra*는 용기와 힘과 같은 남성적인 자질과 같은 말로 쓰였다. 점차 명성, 덕, 책임감 등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지상의 명성이나 평판뿐만 아니라 사후 명성까지로 의미가 넓혀지게 되었다. 수치 *verguenza*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의 정서적 반응을 뜻하게 되었다. 명예의 여러가지 유형의 정의나 책무를 포괄하는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의미가 강화되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황금세기에 이르러 명예는 혈통의 순수성과 직결되고 구기독교인이 개종기독교인보다 우월한 사회적 명예를 갖게 되면서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S. R. Ackerlind, *Patterns of Conflict.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Spanish Literature from 1600 to 1700*, Peter Lang, New York, pp. 191-208).

유대인들은 상공업과 금융업을 통해 경제적 강자의 위치에 섰으며,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질서와 원한을 유발시켰다. 국토회복이 완결되고 카톨릭왕조가 정치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종교의 통일을 추진하면서 유대인들과 회교인들에게 개종 아니면 추방이라는 강력한 탄압정책을 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비밀집회를 통해 계속 유지되어 갔다. 정치적 압력으로 수만명의 유대인이 명목상 카톨릭으로 개종했지만 명목상의 개종은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한 구기독교인들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증폭시켰다.

이 역사적인 인종 갈등은 마침내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스페인적 신화를 만들어냈다. 기독교인은 가문이 순수하게 기독교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대접 받는 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기독교인은 조상이 유대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분의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구기독교인들의 반유대교적 정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노동과 상업활동을 천시하고 명예와 체통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조장했다. 물론, 합스부르크 왕정의 팽창기를 지나면서 시작된 심각한 경제위기가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소위 ‘연금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양반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심리는 노동을 기피하고 비실질적 체통을 숭상하는 스페인 부르주아 계급의 이율배반적 성향을 더욱 심화시켰다.⁴⁾ 게다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군비와 재정수요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신분과 작위를 팔 수 있게 한 왕정의 정치적 선택은 혈통 때문에 사회적 자유를 박탈당한 개종 유대인들에게 신분적 자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전통적 신분제도의 동요에 저항하는 구기독교인들에게는 혈통과 명예의 사회적 가치를 방어하려는 수구적 태도를 더욱 조장시키게 되었다.

명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피카레스크 소설은 17세기 스페인 사회의 부도덕성을 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자유를 박탈당한 개종기독교인들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개종기독교인들의 부정적 현실인식이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인공들과 같은

4) Antonio Ubieto, Juan Reglá, José María Jover, Carlos Seco, *Introducción a la Historia de España*, Teide, Barcelona, 1972, pp. 322-323. Vicens Vives는 면세의 특권을 누리던 하층 귀족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과세의 의무를 지게된 이후에도, 사회적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분유지 욕구와 노동기피현상은 여전히 지속되었다고 지적한다 (*Historia Económica de España*, Vicens Vives, Barcelona, p. 381).

신분적 소외계층을 통해 대변될 수 있었으리라는 말이다. 따라서 피카레스크 소설은 스페인 사회의 총체적 부도덕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제기인 동시에 아래로부터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구질서를 탈신화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표현이라는 주장⁵⁾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편의 이념이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적 자유를 회복하려는 개인주의라면, 다른 한편으로 개인주의의 도전을 차단하고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보수주의적 이념이 있게 마련이다. 구기독교인, 다시 말해 전통 카톨릭교도들의 정서가 보수적 카톨릭 교회 이념에 동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가지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주목할 때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명예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파커A. Parker에 의하면, 피카레스크 소설은 당시의 무정부적 자유주의 취향을 경계하고 책임있는 자유와 도덕적 문제의식을 강조하려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수퍼스T. S. Soufas나 까리요F. Carrillo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수구적 이념보다 비판적 자유주의를 강조한다. 수퍼스에 의하면, 범법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승인 받으려는 피카레스크 인물들의 기지와 해학에서 한 소외계층의 지적 우수를 관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적 우수는 사회의 총체적 가치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좌절되면서 생겨난다는 것이다.⁷⁾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피카레스크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주목한 까리요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인공과 작가의 의식을 동일시하면서 작가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주인공 자신이라고 지적한다. 스페인의 민족적 업보요 신화인 '명예' 심리를 비판하는 한편, 스페인 사회의 신분적 갈등을 통해 휴머니즘의 좌절을 보여주려는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⁸⁾

보수적 입장에서건, 비판적 입장에서건 명예 문제가 피카레스크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이루는 주요한 공통인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피카레스크

5) Carlos Blanco Aguinaga, *Historia Soci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Castalia, Madrid, v. I, 1981, p. 356.

6) *Los pícaros en la literatura. La novela picaresca en España (1599-1753)*, trad. de Rodolfo Arévalo, Gredos, Madrid, 1971, p. 62.

7) *Melancholy and the Secular Mind in Spanish Golden Age Literature*, Univ. of Missouri Press, Columbia, 1990, p. 123.

8) *Semiología de la novela picaresca*, Cátedra, Madrid, 1982, p. 161.

소설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경도된 해석을 경계하고 형식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라사로 까레테르 F. Lázaro Carreter는 피카로라는 이름이 소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장르의 성격을 사건내용에서가 아니라 구조나 형식에서 찾을 것을 강조한다.⁹⁾ 피카레스크 소설의 장르적 특징은 그보다 앞서 생겨난 감상소설에서 이미 선례를 찾을 수 있는 자서전이나 서간체 형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사적 형식들을 구조적으로 통일하여 ‘문학성 literariedad’을 확장시킨 데 있다는 것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을 형식적 요소만으로 범주화하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개별작품들의 차별성을 간과하게 되며, 의미의 폭을 자의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배경이나 형식요소를 검토하는 데 있어 장르를 구성하는 개별작품들이 어떻게 나름대로의 변별적 의미를 생성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사리요』, 『구스만』 또는 『사기꾼』은 비록 근접한 시대적 배경의 스페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사회의식을 통해 현실을 여과하고 있는 것이다. 『구스만』이 『라사리요』의 형식적 완결이라면, 『사기꾼』은 언어 형식이나 주제 동기에서 이미 『라사리요』와 결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일련의 모호성을 고려하면서, 장르의 구조적 공통점과 아울러 각각의 작품들이 지니는 변별적 요소를 검토해보는 것은 피카레스크 소설을 보다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장르 구성 원리의 통일성과 개별성을 함께 검토해보자는 말이다.

2. 『라사리요』의 해학과 개인의식과

아버지가 절도죄로 전쟁터의 마부로 징용되면서 홀몸이 된 어머니는 라사로를 장님의 시동으로 의탁한다. 라사로는 톨레도의 포도주 상인으로 경제적 입신을 성취한다. 장님의 시동에서 출발하여 각고의 역경 끝에 얻은 인생승리였다. 라사로는

9) 《Para una revisión del concepto “novela picaresca”》, *Actas del Tercer Congreso de la Asociación Internacional de Hispanistas*, El Colegio de México, México, 1970, Rep. “Lazarillo de Tormes” en la picaresca, Ariel, Barcelona, 1983, pp. 228-229.

자신의 인생 역정을 자서전이라는 문학 양식을 통해 만인에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낸 한 인간의 인생 예찬이다. 삶을 개척하고 인간적 가치를 회복한 이성적 인간의 자기 예찬이다. 그러나 그 '이성'이란 무엇인가? 가르시아 데 라 콘차 García de la Concha가 현실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시할 수 있는 르네상스적 퍼스펙티브를 통해 현실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때,¹⁰⁾ 라사로의 이성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인식 능력이다. 그러나 트루만 R. W. Truman처럼 『라사리오』를 가리켜 오히려 “‘이성’이 요구하는 도덕적 해결 방식을 해학적으로 전도”시킨 ‘인문주의적 인간형 Homo novus’의 패러디라고 규정할 때¹¹⁾ 라사로의 이성은 ‘이율배반적’이다. 두 가지 논의는 라사로를 현실 속의 행위자인 동시에 현실에 대한 관조자로 부각시키면서 ‘이성’에 대한 라사로의 ‘이성적’ 회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현실에 대한 인습적 인식 지평을 넘어 이성의 담지자인 ‘나’를 발견하고 ‘나’를 에워싼 세계에 대한 인식의 관점을 변환시키려는 새로운 서사형식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 개인의 현실인식 지평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의 르네상스적 세속화 과정에 내재해 있다. 르네상스적 세속화는 신 중심적 세계관이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희랍고전문화의 부활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 문예부흥 정신은 헤브라이즘적 신비주의의 세속화요 인간중심적 헬레니즘의 재현이다. 헤브라이즘이 신으로부터 인간을 투시하려는 것이라면, 헬레니즘은 인간으로부터 신을 투시하려는 것이다. 라사로의 자기중심적 퍼스펙티브는 자기확인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려는 르네상스적 이성 자각이며 탈헤브라이즘적 세속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라사로 자신이 사유의 주체가 되어 신과 세계를 이성을 도구로 탐구하고 인식하려는 능동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지평을 확대시킨 라사로의 이성적 자각은 새로운 사회적 배경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라사리오』는 도시라는 새로운 삶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도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한다. 중세의 도시가 군사적 요새요 정치경제적 자치체였다면, 르네상스기의 근대적 도시는 급격한 농촌인구의 유입과 경제의 규모

10) V. García de la Concha, *ibid.*, pp. 206-207.

11) R.W. Truman, “Lázaro de Tormes and the *Homo novus* tradition”, Rec. Víctor García de la Concha, *Nueva Lectura del Lazarillo*, Castalia, Madrid, 1981, p. 41.

확대로 인적 교류가 익명화되는 개방공간이다. 도시는 사회적 역할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서 또한 개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방적 질서는 세속적 개인을 등장시키고 사회의식을 개인의식을 일깨운다. 도시화된 생존 공간에서 전통적 사회관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역할관계가 변화하는 역동적 사회구조 속에서 라사로의 새로운 자기 발견이 가능해진다. 자신에게 부하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신분상승의 모험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¹²⁾

『라사리요』에 나타난 교회와 성직계급에 대한 비판은 사회권력과 신분질서의 동요를 입증해준다. 카톨릭 신부의 배금주의, 면죄부의 기만적 강매, 엘살바로르와 같은 고위 성직자의 부패는 종교적 가치 규범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촉발하는 것이요, 카톨릭 교회 권력의 약화를 보여준다. 사회권력의 동요는 개인의 자아 실현 욕구를 부추긴다. 전환기의 유동적 사회 구조하에서는 자기를 확인하고 확장시키려는 사회적 의사소통 욕구가 팽배하기 마련이다. 아내의 부정을 묵인하고 권력과 타협하면서 사회적 입신을 추구하고 그 입신을 ‘운명의 절정’으로 예찬하는 라사로는, 말하자면, 개인주의적 자기 실현과 과시라는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는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라사리요』가 개인주의라는 일의적 시대 상황만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자아 성취 의지는 필연적으로 사회와의 긴장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욕구는 사회의 이념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라사리요』가 보여주는 삶의 긴장은 개인과 사회, 자아실현의 의지와 현실적 장벽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라사로의 자아 성취는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는 사회적 현실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라사로는 희망과 체념의 상반된 정서를 드러낸다. 낙관주의적인 동시에 회의주의적이다. 라사로의 욕구 실현 의지에 희망적 색채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 실현 과정에 요구되는 현실과의 갈등과 숙명적 고뇌를 통해 얻어진 체념과 우수가 번져 있다. 그 희망과 체념의 상반된 정서는 삶의 긴장 속에서 농축된 라사로의 자기 반성적 에스프리를 전달한다. 그것이 라사로의

12) 도시문화의 특징인 인간관계의 익명성과 개인주의적 계약원리에 주목한 마라발 J. A. Maravall은 근대적 상품생산이 사치품에의 호기심과 구매욕구를 부추겼으며, 피카로들의 신분상승 욕구도 구매력을 신장시키려는 경제적 이유가 주요한 동기라고 지적한다 (*La Literatura Picaresca Desde La Historia Social(Siglos XVI y XVII)*, Taurus, Madrid, 1987, p. 356).

이성적 자각의 한 단면이라면, 그 ‘이성’의 의미는 낙관주의와 회의주의가 교차하는 현실 인식의 불확실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불확실성’의 이성적 자각을 결정론주의적 해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바예 아르세 J. B. Avallé-Arce처럼 『라사리오』의 운명적 체념을 ‘교조적 결정론주의의 한 가지 형식’으로¹³⁾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접근 방식임에 틀림없다. 에커라인드 S. R. Ackerlind는 결정론주의라는 교조적 척도보다 신분질서의 동요에 편승해 변화를 지양하려는 힘과 그러한 동요를 저지하려는 보수적 힘 사이의 갈등에 주목한다.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작가의 사회경제적 배경, 작가가 지향하는 독자층, 작가의 동기를 중시하여 작가가 개종유태인인가 지배계급에 속하는가 여부에 따라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인지 부도덕성의 신분적 결정론주의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작가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라사리오』의 구조적 특징에서 결정론주의적 해석은 가능해진다. 라사로는 그의 사회적 출세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더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의 출세는 하층 신분의 낙인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울 수 없는 업보임을 재확인해줄 뿐이다. 그래서 라사로는 신분적 질곡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결정론적 주인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결과론적 해석이다. 라사로의 자아실현 의지와 과정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삶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운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라사리오』의 진지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단순한 결정론주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한 실존주의도 아닌 해학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운명적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결정론적 운명에 대한 체념이 어울려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의 갈등이 하나의 긴장이라면, 그러한 갈등을 내면화할 수 있는 여유에서 해학은 배어 나온다.

『라사리오』의 해학적 긴장은 개인의 사회적 고양 의지와 그에 대한 자조적 반성에서 비롯된다. 개별적인 <나>가 사회적인 <나>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자기성찰이다. 사회와의 필연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명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확인에 이를 때 라사로는 사회라는 거울을 통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들여다

13) “Tres comienzos de novela”, Rec. V. García de la Concha, , *op. cit.*, p. 212.

14) *op. cit.*, pp. 62-65.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라사로의 진정한 <나>는 찰나적이다. <나>는 사회를 거부하면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사로는 <나>의 영속성을 찾기 위해 동일시의 방법을 택한다. 개별적 <나>와 사회적 <나>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한다. 개별적 <나>를 보편적 존재의 범주로 확장시킨다.

그래서 『라사리요』는 <나>를 현실 밖으로 이끌어낸다. <나>의 의지는 현실과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현실 밖의 자아를 찾는다. 현실 속의 <나>를 보편적 <나>로 추상화시키려는 것이다. 현실 속의 <나>를 누구나의 <나>로 보편화 시키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실존적 <나>를 항구적 <나>로 확장하는 것. 그것은 <나>와 <세계>의 동일시 태도에서 가능해진다. 라사로는 『라사리요』를 통해 <나>와 <세계>를 유사성과 조응의 관계에서 투시할 수 있게 된다. <나>라는 소우주와 <세계>라는 대우주는 ‘거대한 존재의 사슬 Great Chain of Beings’에 얽여져 있다.¹⁵⁾ <나>는 개별적인 <나>인 동시에 언제나 보편적인 <세계>이다. <나>와 <세계>의 조응은 염세적 결정론주의나 도덕적 교조주의와는 다르다. 그것은 현실 속에 있으면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나>로 보인다. 자기고백적 글쓰기는 그러한 보편적 자아 찾기의 모험이다. 현실 속의 <나>를 문학적으로 완성된 <나>와 동일시한다. 문학적으로 완성된 <나>는 현실과 갈등하는 개별적 자아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보편적 자아이다. 세계와 동일시되는 문학적 자아의 확립은 라사로의 사회와의 대립을 해소시킨다.

문제는, 영속성을 추구하는 <나>의 보편화는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라사로의 보편적 <나>는 문학적 허구 속의 <나>이지 현실 속의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사리요』 속의 보편적 <나>는 여전히 허구의 <나>이며, 그 허구의

15) 푸코 M. Foucault는 유사/조응 resemblance/correspondance의 관계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방법을 전고전주의적 에피스테메라고 규정한다. 그는 르네상스기와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이른바 고전시대 사이의 에피스테메의 단절을 지적한다. 유사/조응에 의한 인식범주에서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이나 그보다 상위의 현상계에 자체의 거울이미지를 갖게 된다. 가장 고차적 질서가 지상의 질서에 반영된다는 것을 자연 현상화의 일반적 원리로 간주하여, 사물과 사물,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 존재계의 거대한 사슬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The Order of Things*, New York, Vintage Books, 1971, p. 30). 푸코가 전고전주의적 에피스테메라고 부른 우주와 인간의 유사/조응 인식은 중세적 세계관이기도 하다(Etienne Gilson, *La Philosophie au Moyen Age*, Rec.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I*, Ed A. Deyermond, Critica, Barcelona, 1979, p. 36).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언제나 현실적 <나>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라사리요』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주체를 자임하는 <나>의 자기모순을 보여주게 된다. 라사로의 보편적 <나>라는 주관적 인식은 잠정적인 자기 확인에 불과하며 현실적 <나>와의 충돌을 전제로 한다.

『라사리요』의 소설적 의미는 대립하는 두 자아, 현실적 <나>와 보편적 <나> 사이의 잠정적 균형을 묘사해낸 데 있다. 현실적 <나>의 출세와 문학을 통해 완성한 보편적 <나>의 초상화 사이의 잠정적 균형 속에 드리우는 것은 자조적 해학이다. 그의 문학적인 <나>는 바로 그 불안정한 균형을 잠시 지탱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출세는 도덕적 자기배신을 대가로 한 불안한 사회적 안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라사로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확보한 마당에 아내의 부정을 문제삼는 친구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침묵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다.

-여보게 친구들, 날 괴롭히는 애기들일랑 그만 두게나. 날 괴롭히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지는 않겠네. 더군다나 내 마누라와의 일에 끼여들어 불화를 일으킨다면 말일세. 내 아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보배일세.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지. 게다가 신이 그녀로 하여금 수많은 은총을 내게 베풀게 하지 않았나. 내 분에 넘치게 말일세.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툴레도 사대문 안의 어느 여자보다 내 아내는 훌륭한 요조숙녀일세. 탄말을 지껄이는 놈만 있으면 죽여 끝장을 내버리겠네.

그리고는 더이상 말이 나지 않았다. 내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다.¹⁶⁾

천신만고의 역정 끝에 얻어진 가정의 평화는 침묵이 강요된 긴장 속의 잠정적 평화이다. 라사로의 출세에 내포된 위기의식이 불안하게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라사로가 문학적 자기 실현을 통해 현실적 <나>를 보편적 <나>와 동일시하려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 <나>의 자각에서 비롯된 실존적 불안을 해소시켜 보려는 자기 방어적 노력일 것이다. 여기서 『라사리요』는 방어적 의미긴장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잠시 피해가게 하는 것은 불안정한 안정을 오히려 위안으로 삼으며 위기를 웃음으로 어우르는 해학이다.

방어적 의미긴장에서 드러나는 라사로의 해학은 사회질서의 변화과정에서 개인

16) *Lazarillo de Tormes*, ed. de Francisco Rico, Planeta, Barcelona, 1980, p. 80.

을 확인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또 하나의 자기중심적 수사학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현해갈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자기실현의 조건을 쟁취해야 하는 실존적 의무가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라사로가 현실적 <나>를 문학적 <나>로 동일시할 때, 그러한 실존적 의무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의 자각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존적 긴장을 『라사리요』는 해학적 자기표현을 통해 은밀한 위안으로 되바꾸어 놓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사리요』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의미의 균형은 긴장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불안정한 위기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3. 『구스만』의 실존적 긴장

『구스만』의 주인공도 라사로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하층 신분의 인물이다. 부정한 어머니와 부도덕한 아버지의 가계에서 물려받은 신분적 질곡은 이들의 삶을 운명적으로 동질화시키는 배경이다. 그러나 자기실현을 억압하는 사회권력에 대한 반응 양식은 서로 다르다. 염세적인 구스만이 겪는 시대적 긴장감은 회의와 낙관이 교차하는 『라사리요』의 서사적 긴장과는 다른 것이다. 사회적 반응 양식의 차이를 작가의 신분 배경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개인과 사회의 시대적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피카레스크 소설의 내재적 동인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사리요』에서 인식적 긴장이 모호한 균형에 도달했다면, 『구스만』에서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의식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다. 라사로는 서문에서 인용한 ‘명예가 예술을 낳는다 Honos alit artes’(전문)는 키케로의 명제를 전략적으로 패러디하면서 사회적 가치구조와 자아실현 의지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된 긴장을 잠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라사리요』의 패러디가 전략적이었다는 것은 ‘명예’의 원초적 의미를 보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의미의 사회적 가치를 전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⁷⁾ ‘명예’를 개인의 긍정적 가치와 사회의 부정적 가치라는 이중적 의미로 쓰고

17) Linda Hutcheon에 의하면, 담지적 의미 authority와 전복적 의미 transgression의 양면성을 지니는 패러디는 미학적 혁명과 역사적 변혁을 촉발하는 동시에 보수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미묘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 of*

있다는 말이다. ‘자전적 글쓰기’는 ‘신분적’ 명예와 ‘현학적’ 명예를 다같이 패러디하면서 라사로를 해학적 낙관주의로 이끌 수 있었다. 라사로는 한 가지 실존의 동기를 찾아낸 셈이다. 구스만은 라사로처럼 실존적 가치 동기를 성취하지 못한다. 부단한 모색의 과정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라사리오』의 서사적 구조가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구스만』의 서사구조는 실존적 긴장을 바탕으로 한다. 『구스만』의 서사적 특징은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제시에 있다. 실존적 긴장은 사건 서사와 이념 서사 사이의 형식적 긴장과도 맞물려 있다. 라사로 까레데르나 벨릭 Oldrich Belic이 분석한¹⁸⁾ 대로 서사과정의 문법적 대칭성과 삼원적 서사규칙이 두드러지는 『라사리오』의 형식적 치밀성과는 대조적이다. 『구스만』의 경우 설교적 담화가 장황하게 반복된다. 담화의 반복은 소설의 단선적 배경 구조와도 엮여 있다. 세비아에서 프로렌스를 거쳐 로마로 가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세비아로 돌아오는 여정의 대칭은 오히려 서사적 균형보다 구조적 단조로움을 증폭시킨다.

설교적이고 훈화적인 담화에서는 구스만의 자기반성이 두드러진다. 스페인과 이태리에서의 방랑, 절도, 사기 행각 등 인과적 사건 교착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존적 긴장이 두드러져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장 소설의 성격을 지닌 『라사리오』에서 주인공의 의식의 성숙 과정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데 대해, 『구스만』에서는 소설적 사건 전개와 비소설적인 담화의 대칭 교착을 통해 자의식의 대립과 분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리코 F. Rico는 『구스만』의 자전적 서술자가 부단히 자기반성을 모색하는 내면적 자아와 살아남기 위한 실존적 자아로 분열되어 작가/구스만과 행위자/구스만의 이원적 문체구조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대귀적인 두 구스만은 자유의지와 구원에 대한 하나의 교리적 믿음에 통합된다고 보았다.¹⁹⁾ 구스만이 교리적 해결책을 구했다는 주장은 서술시점에서의 구스만이 보여주는 참회에 근거하는 것이다. 구스만의 최종적 참회 여부는 소설의 구조적 종결성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Twentieth-Century Art Forms, Methuen, London, 1985, pp. 68, 69).

18) Vid. Lázaro Carreter, *op. cit.*, Oldrich Belic, en *Análisis estructural de textos hispánicos*, Prensa Española, Madrid, 1969.

19) *La Novela Picaresca y el Punto de Vista*, Seix Barral, Barcelona, 1970. Rec.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Crítica, Barcelona, 1983, pp. 488-489.

그러나 소설 마지막 귀결어에 주목하여 “피카레스크 소설의 상징적 형식적 결정론 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닫혀진” 것이라는 주장은 구스만의 삶이 종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의 형이상학적 선언은 언제나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에 부딪힌다.²⁰⁾

사실, 소설이 열린 구조인가 닫힌 구조인가, 또는 구스만의 참회가 종국적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은 크게 의미 없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자전적 작가’ 구스만과 ‘행위자’ 사이의 분열구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이다. 구스만의 자의식 분열은 실존적 자아와 이데올로기적 자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신분 해방과 사회적 상승 욕구가 실존적 자의식으로 드러난다면, 이데올로기적 자아는 예속의 조건을 감내하도록 스스로 교화하는 통제적 자의식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혈통과 가계의 신분상속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자연법칙화하려는 보수적 지배이념이 내면화되어 나타난 노예적 자의식이다. 구스만의 실존적 자아가 현실을 극복하려는 현실적 자아라면, 이데올로기적 자아는 종교적 현실도피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다.²¹⁾

실존적 자아는 구스만의 행위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라사로와는 달리 절도, 사기, 도박 등 실존적 삶의 선택들은 사회적 범법으로 규정된다. 구스만은 재혼한 여자가 죄수선 선장과 이태리로 도망친 뒤 한 미망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메리카로 떠날 준비금을 훔쳐내다 발각된다. 그리고 죄수선의 종신 노역형에 처해진다. 라사로의 기지는 기회주의적이었지만 반사회적 범법자로 취급받지 않았다. 구스만의 기회주의는 사기와 도박과 도적질 등 반사회적 범법으로 규정된다. 그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뒤따른다. 그것은 감옥이나 죄수선의 노역형과 같은 체형이다. 여기서 이데올로기적 자아는 사회 권력 행사에 대해 반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옥이나 죄수선의 노역형이 구스만이나 빠블로스를 응징하는 효과적

20) Benito Blancaforte, <Introducción> *Guzmán de Alfarache*, Cátedra, Madrid, 1984, p. 23.

21) 『구스만』은 스페인 해상제국이 위기를 맞으면서 대두한 중상주의 경제의 모순을 반영하는 한편, 해외보다 안정된 투자장소로서 육지로의 회귀욕구와 거부사이의 갈등심리를 통해 ‘삶의 물질적 원천으로서의 비옥한 대지 예찬’ *topos*을 주제로 한다는 크로스 E. Cros의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Theory and Practice of Sociocriticism*,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83, pp. 206-207).

수단은 아니었다. 구스만은 죄수선에서 동료죄수들의 모반을 밀고하여 형집행정지를 받는다. 『사기꾼』의 빠블로스네 처형당한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위해 세비아에 갔다가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길에 길동무를 한 또리비오의 패거리와 도적질을 일삼다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빠블로스도 간수에게 뇌물을 주어 석방될 수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터득한 기지를 발휘하여 물리적 구속 장치를 쉽게 피해갈 수 있었다는 말이다.

오히려 구스만의 사회적 도전의지를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배이념의 내면화를 통해서이다. 신체적 구속 장치보다 이데올로기적 감시 장치가 구스만의 자아형성에 보다 효율적이었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적 권력은 폭력에서 교화의 단계로 발전하며, 특히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게 설계된 원형감옥의 등장은 죄수가 스스로 자기감시자가 되게 하고 권력은 보이지 않게 행사될 수 있게 해주었다.²²⁾ 구스만의 이념적 자아는 원형감옥과 같은 전지적 자기 감시자였다. 그것은 현실적 욕구실현을 억압하는 내면적 감시자이기도 하다.

구스만은 적선을 신성한 덕목으로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적선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고백한다. 구스만의 성찰은 반사회적 도전이 아니라 내면적 자기 반성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사회보다 자신을 향해 던져져 있다. 사회의 부패와 위선보다 자신의 열등한 운명이 문제다. 구스만은 자기경멸적이다. 거꾸로 구스만이 적선을 받게 되었을 때도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는 현실 순응적이다. 자신의 열등한 생존환경이 운명적으로 부하된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우리들 가난뱅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없이 다른 숫자 값을 올려주는 영이라는 숫자와 같지. 많으면 많을수록 값을 더해주는 것말이야. 열의 값어치가 나가려면 당신 옆에 가난뱅이 하나를 갖다 놓으면 되지. 가난뱅이를 많이

22) 푸코는 '영혼 soul'을 "육체의 감옥"이라고 규정하고, 영혼이 권력과 지식을 생성하며, 권력관계가 지식 체계를 일으키고, 지식은 권력을 강화시킨다고 말한다(Alan Sheridan, *Foucault. The Will to Truth*, Tavistock, 1980, p. 140). 교화적 권력은 봉건적 군주권력에 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될 수 있다. 푸코에게 감옥의 등장은 단순히 신체적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 방법의 근대적 이행을 의미한다. 새럴 Madan Sarup은 원형감옥의 전지적 권력 개념은 기독교적 신이나 프로이드적 초자아와 유사하며, 증가한 인구의 통제를 위해 등장한 권력장치라고 지적한다(*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The Univ. of Georgia Press, 1989, pp. 74-75).

구제하고 적선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의 영이 부가 되는 것이지. 어째서 당신들은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안되는지, 내게 주어야 할지 말아야할지를 주저하시는가? 가진게 있고 능력만 있다면, 내 요구하는 대로 주시구려. 신의 명령은 들췌치고 라도 자연의 법칙이요. 당신들이 가진 부가 옷잘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덕을 잘 쌓기 위한 것이라면, 게다가 당신에게 주는 것을 내게서 제한하는 것을 안다면, 팔짱을 풀고 신의 의지요 그 의지를 마땅히 실천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야하지 않겠으(I, III, 4, 410).

현실을 정당화하는 구스만의 논리에는 그를 억압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다.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의 타율적 이데올로기가 자율화되고 내면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영’ 또는 ‘무’에 근사한 존재이유, 가진자들의 구원을 위한 보시대상이라는 구스만의 자기평가는 카톨릭 교회의 교화적 지배 이념이 구스만의 종교적 이성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스만의 이성은 트렌토 종교회의 이후의 반종교개혁을 주도한 카톨릭 교회의 이성이요 이념인 것이다.

그러나 한 쪽에서 덕을 쌓는 자가 있으면 그 덕을 베풀어 받은 자가 있게 마련이다. 덕을 쌓아 천국에 갈 사람이 있으면, 덕을 베풀어 받은 자에게는 지옥이 가까워진다. 『구스만』이 개종기독교인의 사회적 불만과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반종교개혁적 카톨릭 이데올로기의 이율배반성에 주목할 때일 것이다. 구스만은 적선을 베풀어 받는 자신의 행위가 내세의 업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카톨릭 교리에 의해 동냥을 신이 허용한 자신의 생존수단으로 합리화했지만, 마침내 신의 선물은 보시자에게 돌아갈 것이요 수혜자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치러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쳐 두려움과 전율을 느낀다. 적선의 수혜는 한편으로 정의의 실현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불의를 생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으로 인간적 문제의식을 가진 구스만을 만나게 된다. 그는 카톨릭 교회 이념의 추종자이면서 비판자이다. 카톨릭 교회 이념의 이율배반성은 구스만의 삶의 이율배반성이며, 인간 존재의 이율배반성이기도 하다. 구스만은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비웃어야 할 부도덕한 인간의 본보기가 아니며, 기독교적 덕목의 실천을 선전하는 반종교개혁적 도덕주의자도 아니며, 그 양면의 존재 방식 사이에 방황하고 갈등을 겪는 우리 모두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

23) Caroll B. Johnson, *Inside Guzmán de Alfarache*, Univ. of California Press, London,

구스만도 라사로처럼 근대적 인간 이성의 자각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라사로의 해학적 삶의 긴장은 구스만의 흑독한 이존의 싸움으로 변해 있다. 구스만의 인간적 문제의식은 라사로보다 한 꺼풀 증첩되어 있다. 라사로의 삶의 긴장이 개인주의적 욕구의 사회적 억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구스만의 실존적 긴장은 사회적 불만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유발된다. 실존적 자아와 종교적으로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적 자아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실적 가치와 내세의 가치가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한 구스만에게 자유를 향한 실존적 자아와 이데올로기적 자아의 대립과 긴장은 부단히 반복될 것이다.

실존적 자아와 대립하는 이데올로기적 자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 장치인 동시에, 자기를 감시하게 하는 원형감옥과 같은 것이다. 『구스만』에서 이데올로기적 자아를 굳이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 권력에 의해 이념적으로 생산되고 내면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자기반성의 근원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구스만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회권력에 대한 도전과 그 사회권력에 의한 자기반성 사이에서 『구스만』은 근대적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4. 『사기꾼』과 광대의 이성

『사기꾼』의 주인공 빠블로스에게서는 구스만과 달리 자기교화를 유도하는 이념적 자아를 찾아볼 수 없다. 『구스만』의 서사적 모티브였던 실존적 자아와 이데올로기적 자아의 대립과 갈등이 없다는 말이다. 주인공은 혈통에 의해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사회적 가치들을 확보하려는 간절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귀족 나으리가 되는 것만이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학교에 들어간다. 귀족의 자손들과 어울리며 출세의 길을 모색한다. 신분을 은폐하고 높은 신분의 처녀에게 구혼한다. 빠블로스의 인생 역정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모험과 그 일련의 모험들이 좌절당하는 과정이다.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자기반성도 있을 수가 없다.

개인의 자의식마저도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부하되는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에서 면제될 수 없다. 빠블로스에게는 철저하게 자의식이 말살되어 있다. 그는 상황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꼭두각시와 같다. 그의 신분상승 욕구는 동물적 본능에 불과하다. 그의 행위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을 되풀이할지언정 현실의 억압적 기제를 극복하려는 자아 실현의 인간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쯤이면 반성적 사유를 결핍한 빠블로스의 인물 성격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성격인물이 아니라 회화적 인물일 수밖에 없다. 어느 다른 피카레스크 소설보다 『사기꾼』의 회화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바로 주인공의 인물성격에 기인하는 바 큰 것이다.

『사기꾼』의 회화적 인물 제시는 빠블로스의 출신 배경을 기술하는 도입부의 문법 구조가 라사로의 그것과 대칭적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⁴⁾ 라사로가 “나는 라사로 데 포르메스라고 불린”다는 겸양적인 문장 구조를 구사하고 있다면, 빠블로스는 일인칭을 주어로 하여 “나는 말이요, 여러분, 세고비아 출신이올시다”라는 자기과시적 문법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라사로가 자의식적이고 빠블로스의 고압적 문체에서 오히려 회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블로스가 자기과시적 이면 그럴수록 그의 자아는 실체없는 허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빠블로스가 귀족 신분이나 어울리는 자기 과시적 문체를 패러디할 때, 라사로의 경우와는 달리 조롱과 야유로만 읽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사로 까레메르가 주목하듯이 인간적 감정을 결여한 냉혹함이 빠블로스를 광대로 만들고 있다면,²⁵⁾ 그의 비인간성과 귀족적 교만이 우스꽝스럽게 어울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다 분명한 이유는 빠블로스에게 자기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 동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체함’과 자기과시적 태도가 빠블로스를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인공에 대한 조롱은 그가 일인칭 서술자라는 점에서도 부각된다. <나> 빠블로스는 작가의 의식의 틀 안에서 행동의 조종을 받는 광대일 뿐이며, <나>의 목소리는 작가의 풍자적 의도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Domingo Ynduráin, 《Introducción》 *El Buscón*, Cátedra, Madrid, 1983, p. 26.

25) Lázaro Carreter, “Originalidad del Buscón” en *Estilo barroco y personalidad creadora*, Cátedra, Madrid, 1984, p. 95.

그렇다면, 『사기꾼』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주인공을 희화화하는 작가의 의도가 투명해진다. 귀족 계급의 지식인이며 지배 이념의 생산자인 껀베도는 신분질서의 동요를 초래하는 소외계층의 도전을 희화적으로 응징하려 했을 것이다. 껀베도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졌지만 그것은 귀족적 시각의 비판의식이었으며 사회 전체의 계층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은 아니었다. 자신이 속한 계층 내의 불의나 비능률을 비판했지만, 그가 속한 계층의 신분적 질서와 권위를 위협하거나 체제를 교란하는 하층민의 도전은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²⁶⁾ 그의 문학은 당대 스페인 사회의 지배이념과 무관할 수 없다. 정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품의 메시지가 구성되리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사기꾼』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희화적으로 구성해낸 것이다. 실제로 빠블로스의 신분상승 욕구는 철저히 응징된다. 완전한 자기 파멸로 사회적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블로스에 대한 작가의 조롱과 야유가 곧바로 독자의 조롱과 야유일 수는 없다. 작가의 조롱에 따라 춤추고 말하는 빠블로스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시각으로 관객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빠블로스에 대한 작가의 조롱이나 『사기꾼』에 투영된 작가의 수구적 이념이 하나의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빠블로스를 광대로 희화화하는 『사기꾼』의 소설 전략에서 지배계층/소외계층의 신분적 대립을 이성/비이성의 대립관계로 바꾸어 읽는다면, 과연 무엇이 이성적이고 무엇이 비이성적인가? 지배계층이 소외계층에 대해, 또는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독자에게는 그럴 수 있다. 작가의 이성보다 의식을 말살당한 주인공의 비이성에 심정적 거리를 좁혀가게 된다. 작가의 목소리에 압도되어버린 주인공의 목소리를 찾아보고 싶어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사기꾼』에서 찾을 수 있는 또다른 의미인 것이다.

작가의 이성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작가의 시각에서 보면, 지배계급의 부패한 윤리와 타협하는 라사로나, 두 개의 자아 사이에 방황하는 구스만이나, 작가의 노리개가 될 수밖에 없는 빠블로스는 사회적 미아들이다. 게다가 구스만과 빠블로스는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으로

26) 당대의 종교재판은 껀베도의 정치적 비판성향을 문제삼아 카톨릭 교회 윤리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의혹을 품었으나, 그의 사회 풍기 교정 의도와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간주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한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는 말을 숨기고 있다. 비이성적이라는 규정에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빠블로스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유리되며 존재조건을 제한을 받는 것은 비이성적이기 이전에 어떤 힘에 의해 이미 비이성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빠블로스는 자기실현을 갈망하는 한 인간이요 실존적 이성이다. 그는 교육을 받아 사회화되고자 한다. 구스만이 부인과 사별하여 빈털털이가 된 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빠블로스는 귀족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부모를 설득해 유학길에 나선다. 학교생활을 통해 미래의 출세를 위한 배경구축을 시도한다. 그러나 빠블로스의 학교 생활은 오명의 연속이었으며, 신분적 유산은 교육만으로 벗어날 수 없는 멍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교수형을 받은 부친의 상속을 받기 위해 세비야로 떠나면서, 빠블로스는 학교 생활을 마감한다. 말하자면, 빠블로스는 사회적 '이성'에 능동적으로 순응하려 하지만, 제도적 이성으로부터 갈수록 소외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 비이성적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다.

사실, 새로 등장한 신홍 부르주아 계급도 교육 제도에 손쉽게 통합되고 심지어 사회권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기관은 국가와 귀족 교회뿐만 아니라 신홍 부르주아 계급의 후원도 받았다. 『견공의 대화』에서 부유한 상인의 자녀교육이 위세당당하게 이루어는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거니와, 지배계층과 신홍 부르주아 계급의 배타적 교육 이데올로기가 베르간사의 입을 통해 풍자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베르간사가 세비야의 부유한 상인을 섬기며, 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책가방을 날라주면서 강의 중간의 휴식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즐겁게 하는 재롱둥이가 된다. 그러나 오히려 학생들의 주의를 빼앗는다는 학부모의 항의를 받아 학교에서 쫓겨날 때 베르간사는 “한 부인이 내 영광과 평화를 빼앗아 갔네. 그 부인은 내생각에 국가이성을 내세웠지만, 국가이성 *razón de estado*을 지키는 한편 또다른 많은 이성을 희생시켰네”²⁷⁾라고 항변한다. 베르간사라는 견공의 우화이기는 하지만, 소외계층이 국가이성 또는 사회적 이성에 의해 부당하게 제도적 교육으로부

27) Miguel Cervantes, *Novelas Ejemplares*, Cátedra, 1986, p. 317. 벨릭 O. Belic은 『견공들의 대화』에서 풍속풍자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 교차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op. cit., p. 82).

터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풍자적 경고였을 것이다.

교육제도의 확립은 근대사회의 정치적 관계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서구의 경제적 도약이 자본축적에 의해 가능해졌다면, 의식이나 물리적 강제력에 의존하던 전통적 권력행사 장치가 학교, 직장, 병영 등에서의 인적 축적을 통한 기술적 정치권력으로 이행하면서 근대적인 정치적 도약이 가능해졌다고 한다.²⁸⁾ 빠블로스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정치적 소외를 의미한다. 근대사회의 정치적 지배구조의 특징이 인적 축적에 있다면, 인적 축적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는 이성/비이성의 이분법적 차별화이다. 정치권력은 사회질서의 제도화를 이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촉진시킬 수 있었고, 권력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비이성적 개인이나 집단으로 격리시킨다. 비생산적 무노동 부랑계층인 피카로들의 기생적 생존방식은 ‘비이성적’ 또는 ‘반이성적’인 것은 인식되었을 것이고, 사회를 교란하고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성적’ 지배계급의 문제의식을 대두시켰을 것이다. 계베도와 같은 귀족 신분의 인물이 마녀, 한량, 도적, 거지, 부랑아, 책략가, 광인 등 당대 스페인의 무노동 부랑계층에 대해 체제에 적용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로 규정할 것이라는 것쯤은 익히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눈으로 투시된 사회적 이성이 빠블로스를 불가피하게 회화화했다면, 그 이면에 빠블로스의 숨죽인 목소리, 비이성으로 치부된 저항의 목소리가 남아 있다. 그 저항의 목소리는 빠블로스의 비인간적인 독설 속에 숨겨져 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 절차를 마치고 빠블로스는 세비야를 떠난다. 사형수인 아버지와도 사형 집행인인 부끄러운 숙부와도 철저히 단절할 것을 결심한 빠블로스가 숙부에게 남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알로소 람벨론 나오리게. 하느님이 저의 훌륭한 아버님을 제 곁에서 데려가시고 어머니는 톨레도에 남겨두게 하셨으니, 비록 톨레도에서 연기야 좀 나겠지만, 이제 나오리를 탄 사람 보듯이 할 도리밖에 없소이다. 저는 이제 내 가문의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남으려 하오. 나오리게 내 발로 가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내 몸을 동강나게 하지 않으시는 한, 들은 될 수 없소이다. 저를 더이상 찾지 마시오. 이름조차 입밖에 내지 마시오. 우리의 같은 핏줄을

28)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1980 (Rec. Richard Halpern, *The Poetics of Primitive Accumulation*, Cornell Univ. Press New York, 1991, p. 5).

부인하는 것은 세계 정말 중요하이다.²⁹⁾

출가하는 라사로나 미지의 이태리로 떠나는 구스만에게도 유사한 신분은폐 의지가 나타나지만, 빠블로스의 신분 은폐는 생의 모든 것을 건 보다 철저한 자기기만이며 그래서 더욱 회화적이다. 그러나 <내 몸을 동강나게 하지 않는 한> 혈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부정이야말로 빠블로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조건 회복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소위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성'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수퍼스는 빠카로들의 소외의식을 현실부정적 지성으로 파악하면서 사회가 그들의 논리를 평가하고 가치있게 받아들여줄 어떤 지적 체계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³⁰⁾ 빠블로스에게 현실부정적 이성, 또는 사회적 이성에 대한 분노와 저항에 주목하는 것은 작가의 이성을 반이성 또는 폭력적 이성으로 뒤집어 보는 것이다. 그러한 뒤집어보기를 통해 빠블로스의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빠블로스/작가의 관계가 일면적이고 단선적인 광대/조종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성/비이성 또는 비이성/이성의 전도 가능한 관계로 이중화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빠블로스가 단순히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앵무새나 광대가 아니라 저항적 자의식을 표현하는 자신의 목소리의 소유자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기꾼』의 정치적 의미가 되새겨진다. 라사로 까레테르가 철저한 형식주의에 기초하여 탈이념적이고 탈정치적인 무사심의 미학적 독창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³¹⁾ 『사기꾼』은 역시 서로 상충되는 정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빠블로스의 신분상승 모험과 좌절의 과정을 정치적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혼화적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반면, 빠블로스의 정치적 소외과정에 주목할 때 그는 이성이란 이름으로 무장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읽혀질 수 있다. 까리요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개인주의와 자유의 구가는 인종적 불화로 규정되는 스페인 사회

29) *El Buscón*, ed. D. Ynduráin, Cátedra, 1983, p. 186.

30) *op. cit.*, p. 109.

31) *Estlio barroco y personalidad creadora*, Cátedra, Madrid, 1984, pp. 93-94.

구조에 대한 ‘지적, 사회적, 도덕적 대응’이라고 피력한 바 있거니와³²⁾ 정신적 자유의 속박, 교조적 규범, 부패한 가치질서에 대한 피카르조적 염세주의와 급속적 현실도피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다.

빠블로스는 단순히 정치적 희생양을 연출하는 광대가 아니라, 광대의 몸짓을 통해 정치적으로 소외된 한 개인의 분노와 저항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이성’적 존재로 규정된 자가 폭력적 이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방어 전략일 수 있는 것이다. 이성은 하나의 폭력일 수 있으며 비이성일 수 있다. 계베도의 분노에 찬 응징에도 불구하고, 억압적 응징의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블로스가 희화적이 되면 그럴수록 더 강도높게 그의 꼭두각시 놀음은 인간적 몸짓으로 바뀌어 보인다는 말이다.

5. 이데올로기적 역동성

결국, 『라사리요』에서 『사기꾼』에 이르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내적 역동성은 개인과 사회의 긴장관계가 여하히 표출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발전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억압하는 사회의 발전을 동반한다. 개인이 사회 속의 위치를 찾고 자아를 확장시키려 하는데 대해 사회는 개인을 일정한 사회적 틀 안에 한정시키는 권력장치를 만들어간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사회권력의 개인에 대한 통제력과 개인의 사회적 박탈감 사이의 긴장이 생겨난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긴장관계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기점을 마련한다.

사실, 개인과 사회의 긴장관계는 스페인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사회적 긴장관계를 드러내는 서사적 모티프는 무엇보다 명예라는 사회적 가치의 성취동기이다. 다인종적 사회 전통의 유산인 명예는 신분적 소의를 극복하려는 개인주의 의식과 전통적 신분질서를 방어하려는 지배계급의 보수적 이념 사이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³³⁾ 그러한 갈등은 카톨릭 왕조 이래 정치경제적으로 팽창하던 스페인의 군사적 실정과

32) *op. cit.*, p. 159.

33) José Antonio Maravall, *La Cultura del Barroco*, Ariel, Barcelona, 1975, p.67.

경제적 난관, 그리고 정치적 쇠퇴를 맞게되는 역사적 위기 상황에서 한층 증폭될 수밖에 없다. 명예는 사회적 균열과 정신적 불안의 사회심리적 징후인 동시에, 그러한 불안을 상쇄시키려는 사회적 반응이기도 할 것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스페인적 사회 전통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다른 한편,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근대라는 시대적 보편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문주의를 배경으로 근대적 인간자각 또는 개인의식을 표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권력에 대한 개인의식의 저항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을 반영하여 근대적 문제의식에 접근해간다. 서구의 근대적 인식 지평에서 개인과 사회의 긴장관계를 표현하는 문학 장르이며, 소설의 발전적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근대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근대적 인간자각의 지평에서 관찰할 때, 『라사리요』가 개인주의적 의식의 태동을 의미한다면, 『구스만』에서는 개인주의 의식의 발전에서 비롯된 사회와의 긴장이 고조된다. 그러한 긴장이 구스만 개인 차원의 실존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면, 『사기꾼』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긴장이 개인의식과 수구적 사회이념 사이의 보다 전투적인 대립관계로 나아간다. 그것은 주인공의 회화적인 몸짓과 작가의 회화적 의도 사이의 대립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의미 구조를 통해보면, 『라사리요』의 해학적 낙관주의가 아이러니의 의미긴장을 일시적으로 유보시킨다면, 『구스만』의 실존적 자기반성은 의미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사기꾼』은 주인공을 광대로 회화화시켜 의미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사 형식의 차이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라사리요』에서 자전적 화자와 주인공의 시점이 일치한다면, 『구스만』에서는 화자와 주인공이 이중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사기꾼』에서는 작가의 시각이 서사에 개입하여 자전적 화자를 지배한다. 주인공과 화자를 통제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작가의 이념적 동기는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사리요』의 자전적 서술 형식이 자전적 형식의 패러디를 통해 실존적 자아의 보편적 가치획득을 달성하려 한다면, 『구스만』의 형식적 패러디는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자아의 분열을 드러내며, 『사기꾼』은 패러디의 회화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작가의 의사를 보다 확고하게 드러낸다.

사실, 이러한 비교분석은 다른 작품보다 『사기꾼』에서 작가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작가의 의도가 명백할수록 작품의 의미를 투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작가의 의도가 가장 투명한

때 그 이면의 의미도 그만큼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기꾼』에 대해 스피처L. Spitzer는 작가와 주인공을 동일시하면서 주인공의 현실주의적 욕구와 금욕적 현실도피, 또는 몽상과 좌절 사이의 긴장관계가 작가가 세계에 대해 갖는 희망과 환멸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응한다고³⁴⁾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인두라인D. Ynduráin은 작가의 의도보다 의미에 주목한다. 작가의 영혼과 문체를 동질적으로 파악한 스피처의 해석을 도덕적이고 초월적인 의도 sentido/ meaning 해석으로 간주하면서, 작품에 분출된 작가의 개성이나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에서 추출되는 의미significaci6n를 구별한다.³⁵⁾

의도의 차원에서 보면, 『라사리요』에서 자아의 자기과시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구스만』에서 자기과시적 욕구에 대한 교화적 의도가 부각되며, 『사기꾼』에서는 자기과시 욕구에 대한 사회적 응징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떠나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다. 작가의 신분이 명확하게 알려진 『사기꾼』의 경우와는 달리 작자미상의 『라사리요』는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구스만』의 경우도 개종 유대인인 작가가 과연 카톨릭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대립되는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암시하려는 것인지 애매한 것이다.³⁶⁾

따지고 보면, 의미의 차원이 의도의 차원보다 오히려 중립적일 수 있다. 보다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또는 의도에 상치되는 의미까지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이다. 이를테면, 께베도의 보수적 이념에 의해 희생되는 주인공의 회화화는 그 희생의 강도만큼 주인공에 대한 독자의 인간적 공감의 폭이 확장된다. 작가의 보수적 이념과는 관계없이 주인공의 방어적 자의식을 읽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께베도의 의도보다 의미에 주목할 때 피카레스크 소설의 보다 일관된 서사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라사리요』로부터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34) <Sobre el arte de Quevedo en el *Busc6n*>, F. de Quevedo, Taurus, Madrid, 1978, p. 176.

35) *op. cit.*, p. 54.

36) 사실, 알레만 M. Alemán의 양친은 모두 개종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알레만은 관료조직에 편입될 수 있었고 궁정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까스뜨로 A. Castro는 『라사리요』의 익명성은 자서전적 형식과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가는 유대계 출신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소외되고 위축된 자아의 영웅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Hacia Cervantes*, Taurus, Madrid, 1960, p. 137).

근대적 개인의식의 점진적 확장이라는 연속선상에서 피카레스크 소설의 발전적 동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사리요』에서 발견되는 근대적 개인의식은 『사기꾼』에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 소진되고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극단적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피카레스크 소설의 내적 역동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구스만』은 라사로의 기만적 자기도취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고, 『사기꾼』은 구스만의 실존적 몸부림에 대한 풍자적 대응이었을 것이다. 라사로 까레떼르는 『전공들의 대화』의 피카레스크 소설에 대한 도전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특히 『구스만』의 비조직적 구성, 주인공의 단조로움, 도덕주의, 세상에 대한 전문의 독자에 대한 일방적 부과 등에 대한 경고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⁷⁾ 한걸음 더 나아가 『전공들의 대화』는 뼈빠로라는 인간을 동물로 우화했다는 점에서 『구스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카레스크 소설 일반에 대한 풍자적 대응이었을 것이다. 각각의 대응은 사회적 문제의식의 차별성을 보여주지만 피카레스크 소설의 내적 발전 동기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피카레스크 소설의 내적 발전 동기는 리얼리즘적 문제의식으로 귀착된다. 자유와 억압의 논리, 사회변동과 신분상승 욕구, 이성의 자각과 회의, 금욕주의와 현실주의 등 피카레스크 소설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은 현실의 가치체계를 비판하고 새롭게 전망하려는 리얼리즘적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다. 카톨릭교회는 서구의 종교개혁을 방어하기 위해 트렌토 종교회의 이후 가부장적 중세 교회체제를 파괴하는 르네상스를 혐오하면서 스킴라 신학 전통을 재건하고 ‘자연적 근거 없는 초자연적 세계’를 구축하려 했다.³⁸⁾ 이같은 초자연적, 신학적, 형이상학적 질서와 체제 하에서 구스만이나 뼈블로스와의 같은 도전적 리얼리스트들의 생존 투쟁은 비이성적 목소리로 억압당하게 되고 사회적 부적격자로 추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초자연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회의 ‘이성’에 대해 자연적 세계관에 근거한 피카레스크들의 ‘비이성’을 대립시켜 사회의 집단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개인주의적 의식의 자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37) *op. cit.*, p. 227.

38) José Luis Abellán, *Historia Crítica del Pensamiento Español. Del Barroco a la Ilustración (Siglos XVII y XVIII)*, Espasa-Calpe, 1988, pp. 30.

라사로는 사회의 전체주의적 '이성'을 수용하면서 사회로부터의 추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구스만은 승인도 부인도 할 수 없었다. 빠블로스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풍자를 통해 개인의 '이성'에 대한 사회 '이성'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개인의 '이성'을 사회적으로 관철하는 데 실패한 구스만과 빠블로스는 현실 탈출을 시도한다. 현실은 전체주의적 '이성'과 '명예'의 이데올로기로 세워진 거대한 원형감옥이었다. 가능한 현실 탈출은 새로운 땅 아메리카로 떠나는 것뿐이었다. 아메리카야말로 '비이성'으로 낙인찍힌 자신들의 언어를 '이성적' 언어로 소통시킬 수 있는 약속의 땅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피카레스크 소설은 아메리카도 유토피아가 아니며 피카로는 아메리카에서도 여전히 피카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근대사회의 개인이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사회와의 갈등과 그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개인의 주체적 의식을 보여준다. 피카레스크 소설의 실험성은 근대 도시에 어울릴 법한 시민계급이 아니라 극단적 소외계층의 인물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신대륙의 금과 은에 눈이 멀어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었던 합스부르크 왕조 하의 스페인 사회에 대한 눈 떠있는 자들의 고발이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똑같이 눈먼자들의 유희적 몸놀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피카레스크 소설의 출현이 스페인 근대 사회의 역사적 필연이었던가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 Abellán, José Luis, *Historia Crítica del Pensamiento Español. Del Barroco a la Ilustración (Siglos XVII y XVIII)*, Espasa-Calpe, 1988.
- Ackerlind, Seila R., *Patterns of Conflict.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Spanish Literature to 1700*, Peter Lang, New York, 1989.
- Batallon, M., 《La honra y la materia picaresca》 *Pícaros y picaresca*, Taurus, Madrid, 1969.
- Belic, O., en *Análisis estructural de textos hispánicos*, Prensa Española, Madrid, 1969.
- Blancaforte, Benito, «Introducción» *Guzmán de Alfarache*, Cátedra, Madrid, 1984.
- Carrillo, F., *Semiología de la novela picaresca*, Cátedra, Madrid, 1982.
- Castro, A., *Hacia Cervantes*, Taurus, Madrid, 1960.
- García de la Concha, V., *Nueva Lectura del Lazarillo*, Castalia, Madrid, 1981.
-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vol. III, Crítica, Barcelona, 1983.
- Johnson, Carroll, *Inside Guzmán de Alfarache*, Univ. of California Press, London, 1978.
- Jones, R. O., *Historia de la literatura. Siglo de Oro: prosa y poesía*, Ariel, Barcelona, 1974.
- Lázaro Carreter, F., *Estilo barroco y personalidad creadora*, Cátedra, Madrid, 1974.
- _____ , "Lazarillo de Tormes" en la picaresca, Ariel, Barcelona, 1983.
- Maravall, J. A., *La Literatura Picaresca Desde La Historia Social(Siglos XVI y XVII)*, Taurus, Madrid, 1987.
- Maravall, José Antonio, *La Cultura del Barroco*, Ariel, 1975.

- Parker, A., *Los pícaros en la literatura. La novela picaresca en España (1599-1753)*, Gredos, Madrid, 1971.
- Parker, Alexander, *Los pícaros en la literatura. La novela picaresca en Europa (1599-1753)*, trad. de Rodolfo Arévalo, Madrid, Gredos, 1971.
- Rico, F., *La Novela Picaresca y el Punto de Vista*, Seix Barral, Barcelona, 1970.
- Soufas, T. S., *Melancholy and the Secular Mind in Spanish Golden Age Literature*, Univ. of Missouri Press, Columbia, 1990.
- Spitzer, L., «Sobre el arte de Quevedo en el *Buscón*», *F. de Quevedo*, Taurus, Madrid, 1978.
- Ynduráin. D.. «Introducción» *El Buscón*, Cátedra. Madrid, 1983.

DINAMICA IDEOLOGICA DE LA NOVELA PICARESCA

Este trabajo revisa los aspectos ideológicos del género picaresco. Es habitual considerar que las novelas picarescas se produjeron en un ambiente degradado de los centros modernamente urbanizados. Era tal la situación socioeconómico y cultural de las ciudades de España que empezaron a surgir a comienzos del siglo XVI. Los pícaros son productos de un particular ambiente urbanizado en un particular momento histórico.

La novela picaresca nos plantea el problema de cómo reaccionan los individuos alienados a través de un complejo proceso contraactivo entre el individuo y la sociedad. Los héroes picarescos -o antihéroes como suelen denominarse- no parecen buscar una rebelión violenta sino que sigue un camino del despertar de su conciencia individualista. Una autoconciencia que se va despertando por la conflictividad entre el individuo y la sociedad.

Lo que nos llama especial atención son las variadas formas de ese despertar de autoconciencia tal como se muestra en diferentes novelas picarescas. *Lazarillo de Tormes* nos ofrece una visión más renacentista del despertar de la conciencia individual. El conflicto social queda disfrazado por el humor negro. La conciencia individual del protagonista de *Guzmán de Alfarache* está bloqueada por la fuerza social ideológicamente dominante. Su existencia sigue tambaleando entre el deseo de la libertad y las exigencias normativas de la sociedad. A pesar de su ideología conservadora de Quevedo *El Buscón* nos revela una conciencia individual de la libertad, extremadamente limitada por la fuerza dominante, pero a su vez máximamente virtualizada.

Así llegamos a entender un proceso dinámico de la conciencia problemática

de los individuos picarescos ante la ideología dominante de la sociedad. Una problematicidad sentida negativamente y configurada positivamente en medio de una sociedad que se iba surgiendo bajo el naciente régimen precapitalista. Además podemos individualizar las perspectivas ideológicas de las novelas picarescas sin desintegrar los elementos constructivos del género picaresco. Los pícaros no eran solo individuos socialmente marginados sino que se presentan como un *homo novus* que buscan nuevos valores del ser humano en el nuevo ambiente histórico.